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106:1~12),

하나님 찬양 드리기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새찬송가 546 / 통 399)

Focus,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시편 106: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06편은 크신 권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요, 참 회시입니다. 본문에는 저자나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시편 기자는 최악으로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과거 선조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신실하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3절)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4~5절)

1-2. 적용과 나눔 |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3절)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받은 복을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6~7절)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8절)

2-2. 적용과 나눔 | 흥해 같은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 마음에 새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가요?

> 말씀 다지기

성경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평생 기억할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험에 빠져 최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 구원 얻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 106:4~5